

제1회 문화관광부선정 우수 잡지 / 제39회 잡지의 날 대통령상 수상

# 美術世界

SINCE 1984 · Monthly Art Magazine MISULSEGYE

SAMSUNG 삼성미술관



P20070422



771227 606504  
ISSN 1227-6065

Vol. 272  
2007 07

www.mise1984.com

Cover Story 비엔나미술사박물관展

Special Feature | 특집 문화수도-광주



Exhibition // 전시 // 베니스 비엔날레展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대예술전시회  
제52회 베니스 비엔날레

글·사진 | 정득용 이탈리아 통신원

베니스 비엔날레 | 6.10~11.21







외부 전시 중 하나인 우고 룬디노네와 우르스 피셔의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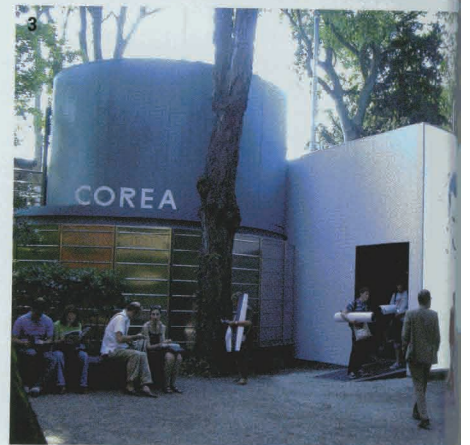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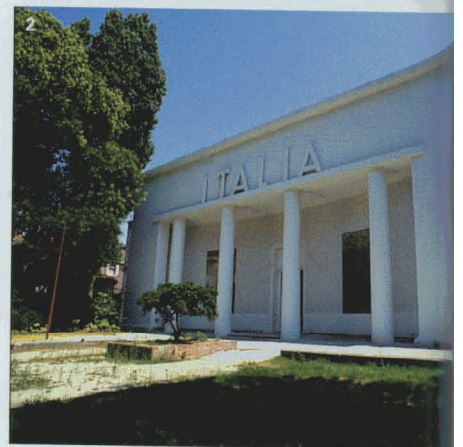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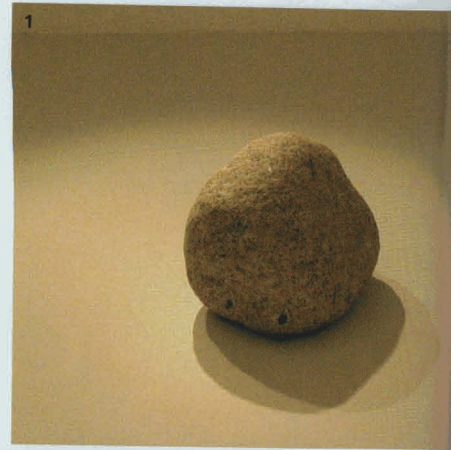
베니스는 아름답다. 특히 외부 전시회를 찾으러 배를 타고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면 간간이 스쳐가는 베니스의 아름다운 건물들에게 가끔 시선을 빼앗긴다. 이런 곳에서 국제 현대 미술제를 조직한 초기 회원들의 생각은 참 기발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예술 전시회 중 하나인 베니스 비엔날레가 2007년 6월 10일에 개막했다. '느낌과 함께 생각하고 지성과 함께 느껴라. 현재 시제의 예술'이라는 주제의 본 전시회의 총감독은 미국에서 큐레이터 겸 미술사 교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로버트 스토(Robert Storr)가 맡았다. 100년을 넘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총감독의 자리를 미국인에게 내어주는 처음 있는 일이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크게 아르세날레(Arsenale), 자르디니(Giardini) 그리고 베니스 도시 곳곳에 열리고 있는 외부 전시회로 나뉘어질 수 있다.

본 전시인 아르세날레에서는 총 96명의 작가들이 초대되었으며 옛 조선소의 공간을 활용하여 전시회를 구성하였다. 처음 전시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 시대의 어두운 부분을 암시하는 듯한 분위기의 작품들이 한동안 이어졌다. 전시 중반부터 이름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몇 점을 소개하자면 양푸동의 '대나무 숲의 7인의 지식인'이라는 밀도 높은 영상작업이 보였으며 프란시스 알리스(Francis Alys)의 'Bolero'와 제이슨 로드즈(Jason Rhoades)의 설치작품이 눈에 띄었다. 일리아 에밀리아 카바코브(Ilya Emilia Kabakov)의 건축적인 새 설치작품이 흥미로웠고 한쪽 방 안에 위치한 젊은 작가 소피 웨탈(Sophie Whettnall)의 비디오 작업이 신선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르세날레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곳은 이곳에 신설된 아프리카관이다. 이 관에는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나 잉카 쇼니베어(Yinka Shonibare), 크리스 오펠리(Chris Ofili)와 같이 이미 서방에서 알려진 작가들의 작품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직접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비디오, 설치, 페인팅이 소개되어서 흥미로웠다. 그리고 건물 뒤쪽의 이태리관과 중국관을 마지막으로 아르세날레는 끝이 난다.

본 전시는 자르디니에 있는 구 이태리관에서 계속된다. 그곳에서는 의외로 1970년대부터 가장 최근의 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이 선보였다. 조반니 안셀모(Giovanni Anselmo),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다니엘 뷔렌(Daniel Buren), 솔 루윗(Sol LeWitt), 로버트 뤼만(Robert Ryman) 등 거장들의 작업들과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Felix Gonzalez-Torres), 스티브 맥퀸(Steve McQueen) 등의 중견 작가들의 작업을 나란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국가관은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미국은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Felix Gonzalez-Torres)를, 영국은 트레이시 에민(Tracy Emin)을, 프랑스는 소피에 칼(Sophie Calle) 등 이미 유명한 작가들을 내세워 좋은 전시회는 가질 수 있었지만 신선한 이미지를 주지는 못했다. 반면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빅토르만(Victor Man), 모니카 소스노브스카(Monika Sosnowska) 등 젊고 실력 있는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어 좋은






Venice is beautiful. Specially, I am absorbed in wonderful buildings of Venice when I take a ship. The thought of beginning members that having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estival in here is clever.

반응을 얻었다. 한국은 작년과 대조적으로 이형구 씨를 단독으로 내세워 개인전 '호모 스페시스(The Homo Species)' 를 열었다. 이번 행사로 100주년을 기념하는 벨기에관이 있는 반면 처음으로 전시회 기회를 가진 터키, 레바논, 카자흐스탄 등의 나라도 있었다. 특히 새로 참여한 국가들이 많았던 이번 행사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역대 최다인 77개국이 참여했다.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의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베니스 도시 곳곳에 위치한 교회나 옛 건물에서 전시회가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도시 내부에 숨어있는 전시회를 찾아다녀야 하는 재미가 있었다. 눈여겨볼 만한 전시회로는 산 조르조 마니오레 섬에서 열린 토마스 데만드(Thomas Demand)의 개인전, 벤젠 성에서 열린 얀 파브레(Jan Fabre)의 전시회와 안 라짜로 아르메니 섬의 사원 외곽에 설치된 배를 타고 가야만 감상할 수 있는 조셉 코스투스(Joseph Kosuth)의 설치작품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 작가로는 이우환의 개인전이 빠름보 포사피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작가 이우환은 이 전시회에 10점의 회화작업과 8점의 설치작업을 출품하였다. 포르투니 성에서는 고대부터 동시대까지 무작위로 수집한 이색적인 전시회가 있어서 흥미로웠다. '아르템포(Artempo)' 라는 제목의 본전시는 이름 모를 부족의 조각에서 부터 뒤샹의 거울작업, 한국작가인 김수자 씨의 영상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집품을 상당량 전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놓치면 안 될 전시회 중 하나를 꼽으라면 베니스 구겐하임에서 하고 있는 요셉 보이스와 메튜버니의 <ALL IN THE PRESENT MUST BE TRANSFORMED>전이다. 두 작가의 영상작업과 드로잉, 설치작업이 진열되어 있어 유럽의 한 거장과 큰 성공을 거둔 젊은 미국작가의 작품을 교차시키며 음미할 수 있다.

베니스는 아름답다. 특히 외부 전시회를 찾으러 배를 타고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면 간간이 스쳐가는 베니스의 아름다운 건물들에게 가끔 시선을 빼앗긴다. 이런 곳에서 국제 현대 미술제를 조직한 초기 회원들의 생각은 참 기발하다. 하지만 현재 베니스 비엔날레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젊고 실험적이어야 하는 현대 미술축제에서 약간은 진부하고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전시장에서 만난 독립 큐레이터 피에르 루이지 따치(Pier Luigi Tazzi) 제9회 카셀 도큐멘타(1992)큐레이팅, 제42회 베니스 비엔날레(1988) 한부 큐레이팅)는 '좋은 작업은 몇몇 눈에 띄었으나 비엔날레 전체를 봤을 때 너무 단조로운 느낌을 받았다' 라고 평했다. 이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본래의 취지를 잊지 않고 되살릴 때만 극복 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 같은 시형착오는 비엔날레가 적지 않은 이슈가 되고 있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 좋은 거울이 될 수 있겠다. 

[www.labiennale.org](http://www.labiennale.org)

1. 빠름보 포사피 성에서 열리고 있는 이우환 작가의 개인전
2. 본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구이테리국가관
3. 이형구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한국관